ⓐ, 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 ⓐ는 ‘볼만한 샘이나 못’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, ‘천하의 지도를 보고’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한다.

② ⓐ가 ‘자기 집’을 ‘문의’라고 한 것에 ⓑ가 동의한 이유는 ⓐ의 상황이 ‘배를 집으로 삼아’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‘들어 앉아 사는 사람’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

③ ⓑ는 ‘바다의 섬’에 ‘집을 짓고 사는 사람’의 삶에 주목하여,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.

④ ⓑ가 ⓐ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, ‘바다의 섬 가운데’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‘물에 산다고’ 보는 것이 ⓑ의 생각만이 아니라 ‘사람들’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.

⑤ ⓑ는 ‘물과 더불어’ 사는 사람도 ‘눈길을 돌’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ⓐ가 ‘물을 보는 법’을 ‘써 볼 데가 없’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.